

형지I&C, BW 청약 대박

- ▶ 청약증거금 1조 8천억 원 넘게 몰리며 최종 경쟁률 124.38대 1 기록
- ▶ BW통해 온라인 및 글로벌 사업 강화, 올해 새롭게 재도약 할 것

<2021-06-03> 패션기업 형지I&C(011080, 대표이사 최혜원)의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발행하는 신주인수 권부사채(BW)가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.

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형지I&C가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진행한 공모청약 결과, 청약 증거금(청약액의 100%)이 1조 8천억 원 넘게 몰리면서 최종 경쟁률이 124.38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

이번에 형지I&C가 발행하는 150억 원 규모의 BW는 2024년 만기로 만기수익률이 연 4%이고 표면이자율은 2%다. 투자자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2년 12월 4일부터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

새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1,838원이다. 형지I&C의 주가는 지난해 6월 400원대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고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이번 달 초부터는 1,8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.

형지I&C 관계자는 “형지I&C는 BW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온라인 인프라 확대, 글로벌 사업 영토 확장에 힘쓰는 등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올해 새롭게 재도약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